

社 說

여야 협치 없으면 개헌 불가능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데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필요성은 분명히 짚되 논의의 시기를 선택적으로 제시했다. 전직 국회의장인 정 총리도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촛불을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구현되도록 개헌 작업을 시작할 때라는 게 의지다.

한 국회의 최고 규범 체계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에 걸맞은 최대 다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여야 간 고도의 합의가 요구된다. 개헌 논의는 불붙은 순간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변한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긴 뒤 논의를 본격화하자 제안은 그래서 타당하다. 그런데 제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21대 국회가 집중할 것은 소모적 개헌 논의가 아니라 민생 챙기라고 강조했다. 일단은

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선뜻 나서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시기 여야 타협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면서도 원산 국민 미국의 4년 중임과 달리 5년 단임을 못박았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장기집권을 경계한 결과물이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같은 민주화 장치에 더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오랜 시간이 흘러 낡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데 부족하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마무리되지만 그에 앞서 국회의 재적 과반 발의와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통합당의 의석 수는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는다. 의석 분포상 야당 동의 없이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여야의 협치 여부에 따라 개헌이 성사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생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콜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故 최숙현 선수,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는 최근 두 사람을 떠나 보내며 큰 혼란과 갈등, 공분(公憤)을 맛 보아야만 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비극적 사망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최숙현 선수는 폭행과 폭언, 성추행의 피해자이고,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가해자이다.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선수이다. 철인3종 경기의 한 선수로서 수영, 사이클, 마라톤의 세 가지 종목을 실시하는 경기로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스포츠이다. 철인3종 경기의 원어는 세 가지 경기를 뜻하는 트라이애슬론(triathlon)이다. 철인3종 경기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극기(克己)와 인내를 요구하는 초(超)지구력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철인경기 거리 기준으로 하면 장장 9시간 동안 수영하고, 사이클로 달리고, 마라톤을 해야 하는 경기이다.

최숙현 선수가 김규봉 감독, 안주현 팀닥터, 장윤정 주장 선수, 김도환 남자 선배 선수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구타(毆打), 성추행 등의 지옥 같은 삶을 죽음으로 향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라는 문자를 엄마에게 보내고 22살의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경

주체육회, 경주시,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경찰청 등에 호소했으나 좌절과 절망만이 돌아왔다. 동료 선수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 30일에 10일은 맞았다고 추가 폭로하고 선수 훈련비도 감독 등에게 일부 바쳐야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해 1월, 2014년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2020년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MVP였던 심석희 선수도 2014년, 17세 고등학생 때부터 4년간 조재범 대표팀 코치에게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때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10년 전에도 지금과 똑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푸른 꿈을 안고 체육 경기에 뛰어들어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폭력과 폭언, 성폭행 등으로 고통과 절망을 안겨 주고 있다. 선수 생활 외에는 다른 길을 가기 어렵다는 약점을 잡고 감독, 코치 등이 사실상 노예처럼 때리고 폭언하고 성추행하는 악습과 체육 문화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서라도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실형 8

개월을 때린 사범부도 문제가 크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북한산에서의 극단적 선택도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세계 5대 선진 도시 서울시 시장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2017년부터 4년 간 시장실 여비서를 시장실과 시장실 집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자 여비서가 7월 8일 경찰에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변호사로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 가게 등을 한 인권운동가로서 여성 인권과 성평등, 미투 운동에도 앞장섰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진영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추행으로 구속되어 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성추행으로 사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은 받았으나 이미지 추락이 크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재판 중이다.

7월 13일(월), 박 시장 서울특별시시장(葬) 5일장 마지막 날, 발인(發柩)날에 피해자(여비서)를 대신하여 김재련 변호사, 한국여성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연대하면서 단호하게 폭로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시장 비서관, 친구, 기자 등에게

알리고 부서 이동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되었고,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보안을 부탁했으나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 박 시장에게 알려졌다. 여비서와의 성추행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구속되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사퇴하는 민감한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박 시장은 성추행을 계속했다고 폭로했다.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사실도 밝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박 시장 빈소 조문자는 2만여명, 7월 12일(일) 오후 2시부터 68만여명 온라인 추모자는 갑자기 늘어나서 92만여명이다. 서울특별시(葬)에 반대하고 가족장으로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여명이 동의했다. 직장 상사(上司)의 위계(僞計, 威計)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대책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로만 다짐하고 시간이 가면 또 흐지부지될런지 모르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3월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모범 방역으로 선진국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 시민에 걸맞은 깨어있는 의식과 문화와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욕과 성욕을 충족시켜야 하는 동물이다. 배가 부르다음에는 본능적으로 일어서는 성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동서고금을 통하여 성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은 성인(聖人)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자칫 성착취나 성범죄 등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위선과 도취에 빠질 수도 있다. 참으로 인간도 불가사의하고 성(性, Sex)도 불가사의하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 어린 시선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아홉 살의 어린 아들을 가방에 감금하여 숨지게 한 계모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창녕에서 끔찍한 아동학대로 인해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온 아이가 주변사

람들에 의해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만약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계속되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날갯짓 한번 못한 채 세상과 이별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학교 교직원, 그리고 의료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조

기발견률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주변을 좀 더 관심 깊게 봐보자.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지,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관심이 필요하다.

김정은/여성경찰서 생생지구대 순경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내 선택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